KOFI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보 도 자 료	K문화로 세계로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6. 10. 30.(금)	

한국과 태국·베트남, 라이브 음악으로 하나 되다…
'2026 코리아시즌', K-LIVE FESTIVAL로 3만 4천 관객 매료

- **태국 방콕 전석 매진·하노이 2만 8천 명 몰려 성황… 2개국 개최 성료**
- **혁오·QWER·실리카겔·터치드 등 한국 밴드 음악 현지 소개 … K-팝 넘어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과 주태국·주베트남 한국문화원이 공동 주관하는 글로벌 문화교류 사업 '2026 코리아시즌'의 일환으로 K-LIVE FESTIVAL BAND:AGE가 누적 방문객 3만 4천여 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코리아시즌'은 매년 대상 국가를 선정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집중 소개하는 연중 사업으로, 올해 대상국인 태국과 베트남에서 무용·음악·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K-LIVE FESTIVAL은 한국의 라이브 음악을 현지에 소개하는 무대로 꾸며졌다.

지난 10월 17일 태국 방콕 UOB Live에서 열린 공연은 전석 매진 속에 6천여 관객을 모았으며, 24일~25일 베트남 하노이 주베트남한국대사관 후문 야외무대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양일간 총 2만 8천여 명이 찾았다.

이번 페스티벌은 K-팝을 넘어 지금 한국에서 주목받는 밴드와 라이브 음악 문화를 현지에 소개하고, 한국과 태국·베트남 아티스트 및 관객이 서로의 음악을 발견하는 문화교류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콕에서 하노이까지 … 한국과 현지 아티스트가 함께 만든 라이브 무대

‘지금, 밴드의 시대(BAND+AGE)’를 주제로 기획된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의 다양한 밴드·인디 음악과 현지 아티스트의 음악을 함께 소개하는 라이브 무대로 꾸며졌다.

먼저 10월 17일 태국 방콕 공연에는 한국의 혁오(HYUKOH), ONEWE(원위), 민수(Minsu), 에반(EVAN)과 태국의 밴드 페이퍼 플레인즈(PAPER PLANES)가 참여했다. 아티스트들은 록과 인디, 팝 등 저마다의 개성을 담은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티켓 오픈 당일 빠르게 매진을 기록하며 개최 전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어 10월 24~2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QWER, 실리카겔(Silica Gel), 터치드(TOUCHED)를 비롯해 젬베콜라(DjembeCola), 미지니(Mijinee), 양치기 소년단(The Shepherd Bois)이 무대에 올랐다. 여기에 베트남의 싱어송라이터 황중(Hoàng Dũng)과 마우느억 밴드(Màu Nước Band)가 참여해 한국과 베트남의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였다.

하노이 공연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무료 야외 공연으로 마련돼 현지 관객들이 한국 밴드·인디 음악을 폭넓게 접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 라이브 음악의 다양성 소개 … 상호 이해를 넓히는 문화 교류

이번 <BAND:AGE>는 한국의 다양한 밴드·인디 음악을 현지에 소개하는 동시에, 태국과 베트남의 아티스트가 함께 참여해 관객들이 서로의 음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음악을 매개로 한국과 현지 관객 간 상호 이해를 넓히고, 지속적인 문화교류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다양한 한국 문화예술을 현지에 소개하고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코리아시즌’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한편, ‘2026 코리아시즌’은 이번 K-LIVE FESTIVAL에 이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오는 11월 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의 SM Classics와 베트남국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SM CLASSICS LIVE in HANOI’가 개최되며, 태국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실감형 콘텐츠를 재구성한 미디어아트 전시 ‘바람의 풍경’이 11월 16일부터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2026 코리아시즌’의 다양한 문화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https://KoreaSeason.co.kr) 및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해외거점지원팀 강새롬팀장 (☎ 02-3150-48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현장 사진

태국 방콕 K-LIVE FESTIVAL 현장 반응

베트남 하노이 K-LIVE FESTIVAL 현장 관객

베트남 하노이 K-LIVE FESTIVAL 현장 반응